

## 청소년의 개별성-관계성과 안녕감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이지혜<sup>1</sup>, 이창환<sup>2\*</sup>

<sup>1</sup>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sup>2</sup>서강대학교 심리학과

### Effect of individuality-relatedness and well-being of the youth on creativity

Ji-hye Lee<sup>1\*</sup> and Chang H. Lee<sup>2\*</sup>

<sup>1</sup>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gang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Psychology, Sog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에 대한 탐색 연구로 청소년의 개별성-관계성과 안녕감이 창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 소재 중·고등학생 836명에게 통합 창의성, 개별성-관계성, 통합 안녕감을 측정하는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고 이들의 관계성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개별성, 관계성, 안녕감이 높은 청소년이 창의성이 높았다. 개별성, 관계성, 안녕감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개별성, 안녕감, 관계성의 순으로 설명력이 높았다. 창의성의 차원을 하위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해본 결과 창의적 동기에는 개별성, 심리적 안녕감, 관계성의 순서로 설명력이 높았고, 창의적 태도에는 개별성, 관계성, 심리적 안녕감의 순서로 설명력이 높았다. 창의적 능력에는 개별성, 심리적 안녕감, 관계성, 정서 안녕감, 사회 안녕감의 순으로 모든 예언변인이 유의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n explorative effort to know significant variables on creativity. Particularly, with interest in individuality-relatedness and well-being, it is investigated that how those affect creativity of the youth. For this, a questionnaire measuring integrative creativity, individuality-relatedness and integrative well-being is given to 836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investigate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The results show higher individuality, relatedness and well-being tend to induce higher creativity. Each of individuality, relatedness and creativity has different influences on creativity. Over the whole creativity, explanation gets higher in order of individuality, well-being and relatedness. When creativity and well-being are classified into a sub-category, creative motivation has a high explanation in order of individuality, psychological well-being and relatedness. And creative attitude has a high explanation in order of individuality, relatedn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bout creative ability, all the predictors are explained in order of individuality, psychological well-being, relatedness, emotional well-being and social well-being.

**Key Words** : Creativity, Individuality-relatedness, Well-being, The youth

### 1. 서론

오늘날 학교교육이 지향하는 인간상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변은 이 시대의 트렌드가 무엇인지에 달려있

을 것이다. 교육이란 시대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이를 앞서나가 미래지향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21세기의 세계화와 정보화 시

---

이 연구는 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바탕으로 하여 지도교수가 작성하였음.

본 연구는 2010년도 서강대학교 교내연구비 일부 지원에 의한 연구임 (201010049).

\*교신저자 : 이창환(chleehoan@sogang.ac.kr)

접수일 11년 02월 26일

수정일 11년 04월 13일

게재확정일 11년 05월 12일

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이라는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변화'와 '위기'라는 삶의 문제상황을 '창의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다.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무엇이며 창의적인 사람은 누구인지, 창의성은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 창의성은 새롭고 적절한 것을 생성해 낼 수 있는 개인의 인지적 능력(정범모, 2001; Guilford, 1959; Veron, 1989)과 독창적이고 가치가 있는 사고를 표현하는 성향 등의 인격적 특성이 강조된다(임선하, 1993; 김재은, 2002; 전경원, 2006; Taylor, 1961). 또한 창의성은 곤란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이디어를 내고 가설을 검증하여 결과를 전달하는 문제해결과정(Torrance, 1977)이 중시되며, 그 산출물은 예술, 과학 및 업무분야에서 독창적,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이라야 한다(Weisberg, 1988).

최근의 창의성 연구의 흐름은 창의성에 대하여 다원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창의성의 발현에 동기, 성격, 인지능력, 환경 등의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이다(Amabile, 1996; Sternberg & Lubart, 1996; Csikszentmihalyi, 1988; Isaksen, Puccio & Treffinger, 1993).

Osborn(1963)은 창의성이란 일부 특정인만의 재능이 아니라 상상력이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추고 있는 보편적인 재능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교육에 의하여 어떤 학생이든지 창의성을 계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모든 학생은 창의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자신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다. 잠재력은 유전, 양육, 가족경험, 사회적 경험의 결과로서 어떤 아이는 창의적 재능을 이끌어내 줄 경험을 갖지 못하여 창의성을 훈련하지 못할 수도 있다. 창의성에 관한 통합적 이해는 일상생활에서 창의적 잠재력의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한다.

또한 창의적 잠재력은 전 일생과 관계되며 발달단계에 따라 창의적 표현도 여러 번 변하게 된다. 따라서 창의성은 완성된 형태가 아닌 지속적 변화의 과정에 있는 잠재력으로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창의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연령에 따른 차이와 발달케도를 중요하게 논하고 있다(Runco, 2007).

현재의 한국 사회와 교육 체제는 창의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창의성 향상에 효과적인 기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시 위주 교육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는 지적 능력과 경쟁원리를 앞세우게 되고 창의성은 단지 구호로 그치기 쉬운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의 중요성을 환기하고자 일상에

서 창의성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청소년기와 관련하여 알아보고 창의성이 높은 청소년의 인성 및 심리적 특성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청소년기에 접어든 학생들은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며 집단안의 자신의 위치와 역할, 타인의 기대를 지각하는 한편 자신의 독자적인 관점을 의식하게 된다. 또한 진로 선택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관련하여 자기의 독특성과 능력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기개념과 자아정체성을 발달시켜나간다. 임효신(2010)은 전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창의성, 자아정체감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는데 특히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소들 중 주체성, 친밀성, 미래확신성이 창의성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예측변인이었다. 여기서 주체성은 '개별성(individuality)'을 중시하는 개념이며, 친밀성은 '관계성(relatedness)'을 중시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개별성은 분리지향적인 자기개념이고 탈맥락적인 속성을 지니며 자기만의 독특한 정체감을 추구하는 개념이며, 관계성은 연결지향적인 자기개념으로 자기와 세상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친밀한 유대와 상호의존성을 추구하는 것이다(김동직, 1999).

이와 관련하여 Guisinger와 Blatt (1994)은 Erikson의 전생애 발달의 관점에서 개별성과 관계성의 관계를 논하고 있다. 그들은 유아기, 아동기까지는 개별성과 관계성이 상호참조과정 없이 비교적 독립적인 상태로 발달하게 되지만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감 형성과정에 이르면 초보적인 수준에서 개별성과 관계성의 협응과 통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개별성과 관계성은 발달과정에서 심리적 발달을 상호 보완적으로 촉진하는 개념인 것이다(김동직, 1999).

창의성과 개별성-관계성과의 관련성은 창의적인 사람들의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순적 경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정은이, 2002). 즉 창의적인 사람은 독립적이고 혁신적이며 자기 주장적인 특성 즉 개별적인 성향과 협동적이고 타인을 배려하고 외향적인 특성 즉 관계적인 성향을 동시에 나타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창의적인 사람들의 모순적 경향은 이러한 양극단의 성격 특성을 모두 발달시켰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란 추론을 할 수 있다.

실제 경험적 증거로 정은이(2002)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별성과 관계성이 일상적 창의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창의성에 있어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면 연구결과가 다른 연령대에도 일반화 됨을 의미하며, 청소년교육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그의 연구에서는 창의성이 높은 사람이 관계성, 개별성이 높다는 관계성에 대한 연구가 주안점이었지만, 관계성, 개별성이 높은 사람이 창의

성이 높다는 방향성을 함의하는 연구는 되지 않았다.

창의성은 일상적인 많은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Smith와 Van der Meer(1997)는 창의성을 ‘높은 수준의 방어 또는 개념을 너무 넓게 확장하고 싶지 않을 때의 대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유사하게 Carlsson(2002)은 창의성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융통성있게 전략을 사용하게 한다고 하였다.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일상적 창의성이 사회적 적응 및 심리적 적응을 유의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은이, 2002). 이같은 연구결과는 창의성이 위기에 대해 적응성을 갖게 하며 정신건강과 관련이 깊은 요인임을 알려준다. 적응은 청소년 연구의 주요 심리적 변인인 만족감, 안녕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삶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느끼는 만족감과 심리적, 사회적 안녕감이 창의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이론적으로 의미있는 연구 일 것이다.

Rogers(1995)는 창의성에 대한 개념과 건강함, 자아실현의 개념, 충분히 인간적인 개인의 개념은 모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결국 같은 것으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주로 지적인 능력으로 간주되어왔던 창의성이 심리적 발달, 건강함의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무척 의미 있게 느껴진다. 학교교육이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하여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 2. 연구 가설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준비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학교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또래, 교사와 관계를 맺으며 타인을 인식하는 동시에 타인과 구분되는 자기의 개별성을 찾아 정체감을 정립하며 성숙해간다. 이처럼 청소년의 주요발달과제인 정체감정립은 개별성과 관계성이 상호 협응하여 발달시키는 것이다(Guisinger & Blatt, 1994). 개별성-관계성 둘 다를 조화롭게 발달시킨 사람은 심리적·사회적으로 성숙하며 안정되어 있었고(김동직, 1999; 채정민, 이종한, 2004), 창의적인 사람은 개별성과 관계성이 모두 높았다(정은이, 2002).

정은이(2002)는 대학생의 창의성과 개별성-관계성의 상관관계를 밝히면서 창의적인 사람들의 복합적이며 모순적인 성향은(Barron, 1965; Tardif & Sternberg, 1988; Csikszentmihalyi, 1996) 그들이 개별적인 동시에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정은이(2002)의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청소년에게 적용하려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

서 상술한 바와 같이 그의 연구에서 창의성이 높은 사람이 관계성, 개별성이 높다는 관계성에 대한 연구가 주안점이었다. 즉 관계성, 개별성이 높은 사람이 창의성이 높다는 방향성을 함의하는 연구는 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므로 창의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알아볼 것이다.

한편, 개별성-관계성이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에 관련되어 있으나 정신건강과 더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표는 안녕감이다. 창의성과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한 논쟁은 지난 수백년 간 지속되어왔으나 연구결과들은 상이한 결론을 내리고 있어서 단순하게 결론짓기가 어렵다. Scott(1985)은 사회는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형적이고 구조화된 삶의 방식을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를 의심없이 수용하지만 창의적인 영재들은 이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하였다. 반면에 Nicol과 Long(1996)은 창의적인 사고는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자원이라고 설명하였기에 창의적인 사람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겪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정준성(2008)의 초등학교 6학년 아동 대상의 연구에서 창의성과 적응유연성, 안녕감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창의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 서로 상반되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어 이러한 모순점에 대한 추가 실증적 정보를 얻기 위하여 창의성과 안녕감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별성, 관계성, 안녕감이 높은 청소년이 창의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가설 1)을 설정하고, 각각의 변인의 측정치가 높을수록 창의성 점수도 높을 것이라는 세 개의 하위 가설을 설정하였다(1-1부터 1-3).

개별성, 관계성, 안녕감은 적응성과 자기실현적 관점에서 창의성과 서로 연관된 점이 많지만 또한 서로 구분되는 영역이다. 그러므로 개별성, 관계성, 안녕감 가운데 어떤 요인이 청소년의 창의성에 더 많이 기여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창의적인 사람은 개별성과 관계성이 모두 높았다(정은이, 2002). 그러나 개별성과 관계성 가운데 창의적인 사람들의 성향에서 더 빈번하게 관찰되는 특성은 개별성과 관련되어지는 독자성, 비순응성이었다(조정하, 2000; Mackinnon, 1962). 발달적으로도 청소년은 개별성의 발달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며 차츰 자신의 정체성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청소년에게는 타인과 구별되는 자신의 독특함인 개별성을 발달시키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일 수 있으며 그들이 창의적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에도 개별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창의적인 사람들의 양면적인 성향은 개별성과 관계성의 통합적인 개념인 안녕감과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창의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양면적인 특성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가지 안녕감의 개념들은 상호 관련이 있으면서도 서로 구분이 되므로 이들이 창의성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창의적 사람들의 모순적인 성향에서 독자성, 비순응성이 두드러졌으므로(조정하, 2000; Mackinnon, 1962) 사회적 안녕감의 영향력은 개인적인 영역의 안녕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연구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정준성, 2008)는 있으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성과 안녕감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본 연구는 아직 없다. 정준성(2008)이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창의성과 안녕감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특히 심리적 안녕감이 창의성과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정서적 안녕감은 매우 낮은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창의성과 안녕감의 상관관계와 창의성이 안녕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만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반대측면 즉, 안녕감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개별성, 관계성, 안녕감이 창의성에 미치는 중요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가설 2)을 설정하였다. 각각의 변인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친다면 상대적 중요도를 알아보는 것은 관련 심리기제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 3. 연구 방법

####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서울시내 중학생 280명과 일반계 고등학생 320명, 전문계 고등학생 276명이 참여하였다. 설문지 수집은 2010년 10월 셋째 주~11월 첫째 주까지 이루어졌다. 대상자들의 표집은 중학교 3곳, 인문계 고등학교 3곳, 전문계 고등학교 4곳에서 하였으며 수업 중 설문지를 통해 응답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성실 응답을 하였거나 무선적으로 답한 41부를 제외하고 총 836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청소년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분포는

남자 397명, 여자 439명이었으며, 연령분포는 15세~19세의 범위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의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피험자 인구학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		명
성별	남자	397
	여자	439
	계	836
학교유형	중학교	267
	일반계 고등학교	301
	전문계 고등학교	268
	계	836

#### 3.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병기, 강현숙(2006)이 창의성의 통합적 접근에 기초하여 MAPS 4A모형(박병기, 1998)을 바탕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통합 창의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척도 91문항에서 최초 문항선별과정 시 선별된 74문항을 사용하였으며, 6점 Likert 형식으로 구성된 것을 편의상 5점 Likert 형식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통합 창의성 척도는 창의적 동기 17문항, 창의적 태도 16문항, 창의적 능력 41문항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의적 동기’는 창의성의 실현을 위한 바탕으로 창의적 태도 또는 자세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주는 것으로서 ‘호기심’, ‘집요성’, ‘유희성’ 3개의 하위요인을 포함한다. ‘창의적 태도’는 활성화된 동기를 창의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이끄는 자세의 방향성으로서 ‘독자성’, ‘모험심’, ‘개방성’의 3개 하위요인을 포함한다. ‘창의적 능력’은 실제로 창의적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데 동원되어야 하는 발견능력으로서 ‘지식’, ‘상상력’, ‘독창성’, ‘민감성’, ‘유창성’, ‘융통성’, ‘정교성’의 7개 하위요인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하위척도별로 창의적 동기 척도는 0.842, 창의적 태도척도는 0.744, 창의적 능력척도는 0.950이었다.

개별성, 관계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동직(1999)이 개발, 타당화한 개별성-관계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별성 15문항, 관계성 15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피험자들은 5점 Likert 방식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

개별성 척도는 자기와 타인 혹은 자기와 세상의 분리를 반영하는 문항들로 주장성, 독립성, 자율성을 구성요인으로 갖는다. 관계성 척도는 자기와 세상의 연결을 의

미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졌는데 친밀성, 공감성, 친화성을 구성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별성의 신뢰도 계수는 개별성 신뢰도 계수는 .746, 관계성 신뢰도 계수는 .748이었다.

안녕감은 Keyes(2005)가 개발한 SWBS(Subjective Well-Being Scale)를 이현주, 이미나, 최인수(2008)가 한국적 상황에 적합하게 번안하고 타당화 과정을 거친 ‘한국 청소년 안녕감 척도(K-SWBA)’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적 안녕감, 사회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의 3요인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적 안녕감’은 개인의 삶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평가이며 ‘행복한 삶’으로 정의되는 개념이며,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의미있는 삶’으로 정의되는 개념이다. ‘사회적 안녕감’은 자신의 사회 체계에서 얼마나 잘 기능하는가의 정도를 나타내며 사회적 과제에 초점을 맞추는 더욱 공적인 경험이다. 응답방식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지난 한달 동안 ‘( )’를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에 대해 ‘전혀 없다-한두 번-일주일에 한번-거의 매일-매일’ 중에서 선택하도록 한다.

이 검사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94이며,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정서적 안녕감 .915, 사회적 안녕감 .786, 심리적 안녕감 .751이었다.

#### 4. 분석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개별성-관계성과 안녕감이 청소년의 창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일원변량분석,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먼저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본 연구에 사용된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창의성, 개별성-관계성, 안녕감의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 창의성 전체	1									
2. 창의적 동기	.851**	1								
3. 창의적 태도	.736**	.642**	1							
4. 창의적 능력	.953**	.702**	.547**	1						
5. 개별성	.599**	.496**	.581**	.530**	1					
6. 관계성	.423**	.357**	.407**	.373**	.282**	1				
7. 안녕감 전체	.441**	.371**	.333**	.420**	.274**	.379**	1			
8. 정서적안녕감	.254**	.235**	.232**	.221**	.158**	.289**	.795**	1		
9. 사회적안녕감	.367**	.297**	.252**	.361**	.206**	.308**	.902**	.565**	1	
10. 심리적안녕감	.509**	.422**	.379**	.488**	.344**	.384**	.871**	.546**	.695**	1

\*\* $p < .01$

표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성( $r = .599, p < .01$ ), 관계성( $r = .423, p < .01$ ), 안녕감( $r = .441, p < .01$ ) 모두가 창의성(전체)과 서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창의성, 개별성-관계성, 안녕감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위의 개별성, 관계성, 안녕감 세 독립변인들이 발달된 정도에 따라 창의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하집단에 따라 창의성 전체점수를 일원 변량분석하였다. 이때 상/하 집단의 구분은 상위25%, 하위25%로 나누어 상하 집단을 구성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3, 표 4, 표 5에 제시하였다. (상/하집단 설명에 대하여 통합.)

[표 3] 개별성 상·하 집단 구성과 일원변량분석 결과 (df=437)

창의성		개별성 상집단 (N=235)	개별성 하집단 (N=202)	F
		M (SD)	M (SD)	
창의적 동기	호기심	3.655 (.601)	3.133 (.654)	75.417**
	집요성	3.735 (.661)	2.958 (.677)	146.892**
	유희성	3.597 (.634)	2.992 (.613)	102.112**
	전체	3.666 (.518)	3.030 (.508)	166.983**
창의적 태도	독자성	3.770 (.605)	3.058 (.596)	152.167**
	모험심	3.504 (.636)	2.501 (.686)	237.324**
	개방성	3.371 (.848)	3.312 (.771)	.565
	전체	3.570 (.463)	2.915 (.460)	218.851**
창의적 능력	지식	3.718 (.724)	3.092 (.788)	74.987**
	상상력	3.504 (.649)	2.784 (.717)	121.478**
	독창성	3.459 (.753)	2.503 (.806)	163.579**
	민감성	3.351 (.686)	2.708 (.725)	90.350**
	유창성	3.347 (.674)	2.642 (.691)	115.912**
	융통성	3.357 (.722)	2.674 (.742)	94.740**
	정교성	3.328 (.744)	2.650 (.748)	89.754**
	전체	3.436 (.570)	2.713 (.623)	160.494**
창의성	전체	3.518 (.458)	2.829 (.493)	228.758**

\*\* $p < .01$

분석 결과 개별성 상집단( $m = 3.518$ )이 하집단( $m = 2.829$ )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1, 435) = 228.758, p = 0.001$ ). 또한 창의성의 세 하위차원인 창의적동기, 창의적태도, 창의적능력에서도 유의미하였으며( $F(1, 435) = 166.983, p = 0.001$ ;  $F(1, 435) = 218.851, p = 0.001$ ;  $F(1, 435) = 160.494, p = 0.001$ ) 각각의 하위요인들에서도 개방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요인들이 유의미하였다.

[표 4] 관계성 상·하 집단 구성과 일원변량분석 결과 (df=399)

창의성		관계성 상집단	관계성 하집단	F	
		(N=209)	(N=190)		
		M (SD)	M (SD)		
창의적 동기	호기심	3.548 (.610)	3.235 (.708)	22.527**	
	집요성	3.574 (.663)	3.153 (.796)	33.113**	
	유희성	3.654 (.606)	2.952 (.630)	128.480**	
	전체	3.588 (.494)	3.122 (.609)	71.159**	
창의적 태도	독자성	3.668 (.603)	3.184 (.685)	56.300**	
	모험심	3.314 (.719)	2.733 (.770)	60.828**	
	개방성	3.654 (.800)	3.132 (.754)	44.613**	
	전체	3.532 (.463)	3.002 (.511)	117.993**	
창의적 능력	지식	3.660 (.715)	3.158 (.818)	42.712**	
	상상력	3.403 (.673)	2.897 (.759)	49.834**	
	독창성	3.217 (.844)	2.710 (.868)	34.950**	
	민감성	3.315 (.677)	2.718 (.739)	70.772**	
	유창성	3.238 (.686)	2.720 (.702)	55.628**	
	융통성	3.326 (.698)	2.743 (.762)	63.623**	
	정교성	3.298 (.752)	2.689 (.788)	62.397**	
	전체	3.345 (.590)	2.800 (.655)	76.400**	
창의성 전체	3.441 (.474)	2.918 (.547)	104.986**		

\*\*p<.01

관계성도 상집단(m=3.441)이 하집단(m=2.918)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 397)=104.986, p=0.001). 또한 창의성의 세 하위차원인 창의적 동기, 창의적태도, 창의적능력에서도 유의미하였으며(F(1, 397)=71.159, p= 0.001; F(1, 397)=117.993, p= 0.001; F(1, 397)=76.400, p= 0.001) 각각의 모든 하위요인들이 유의미하였다.

[표 5] 안녕감 상·하 집단 구성과 일원변량분석 결과 (df=395)

창의성		안녕감 상집단	안녕감 하집단	F	
		(N=209)	(N=186)		
		M (SD)	M (SD)		
창의적 동기	호기심	3.559 (.619)	3.196 (.683)	30.698**	
	집요성	3.660 (.651)	3.020 (.733)	84.451**	
	유희성	3.665 (.609)	2.973 (.650)	119.259**	
	전체	3.626 (.520)	3.068 (.570)	103.429**	
창의적 태도	독자성	3.569 (.553)	3.289 (.717)	19.151**	
	모험심	3.423 (.604)	2.682 (.728)	122.137**	
	개방성	3.36 (.814)	3.225 (.717)	3.461	
	전체	3.425 (.439)	3.045 (.505)	78.101**	
창의적 능력	지식	3.672 (.696)	2.971 (.749)	92.826**	
	상상력	3.471 (.627)	2.857 (.727)	81.469**	
	독창성	3.367 (.750)	2.710 (.837)	67.676**	
	민감성	3.431 (.625)	2.737 (.718)	105.525**	
	유창성	3.309 (.636)	2.746 (.678)	72.574**	
	융통성	3.394 (.678)	2.736 (.719)	87.372**	
	정교성	3.437 (.694)	2.639 (.681)	132.359**	
	전체	3.434 (.544)	2.773 (.610)	129.470**	
창의성 전체	3.485 (.456)	2.899 (.512)	144.284**		

\*\*p<.01

안녕감도 안녕감 상집단(m=3.485)이 하집단(m=2.899)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

393)= 144.284, p=0.001). 또한 창의성의 세 하위차원인 창의적동기, 창의적태도, 창의적능력에서도 유의미하였으며(F(1, 393)=103.429, p=0.001; F(1, 393)=78.101, p= 0.001; F(1, 393)=129.470, p=0.001) 개방성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들이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개별성, 관계성, 안녕감이 높은 청소년이 창의성이 높을 것이다”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이처럼 개별성, 관계성, 안녕감은 각기 창의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므로 세 변인들 중 어떤 요인이 특히 청소년의 창의성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이론 정립과 관련하여 의미 있을 것이다.

가설2의 검증을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중요도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개별성, 관계성, 안녕감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증하여 세변인 모두 독립적인 변인임을 확인하였고 세 변인 모두 독립변인에 넣었다(VIF= 4.5). 창의성에 대한 개별성, 관계성, 안녕감의 회귀분석결과를 표 6과 같다.

[표 6] 창의성에 대한 개별성, 관계성, 안녕감의 회귀분석표 (n=568)

준거 변인	예언 변인	B	β	t	R	R <sup>2</sup>	ΔR <sup>2</sup>	F
창의성 (전체)	1 개별성	.650	.598	21.550**	.598	.358	.358	464.423**
	2 개별성	.561	.516	17.745**	.664	.441	.083	358.244**
	안녕감	.146	.300	12.738**				
	3 개별성	.519	.478	16.763**				
	안녕감	.115	.235	10.202**	.688	.474	.033	268.317**
	관계성	.208	.200	6.930**				

\*\*p<.01

창의성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예언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개별성, 관계성, 안녕감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이 높은 순서는 개별성, 안녕감, 관계성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별성이 창의성을 많이 설명하였는데, 1단계에서 35.8% 설명하였다. 그리고 2단계에서 개별성, 안녕감을 투입하자 창의성에 대한 설명력(R<sup>2</sup>)은 35.8%에서 44.1%로 8.3% 증가하였고 3단계에서 개별성, 안녕감, 관계성 변인을 투입하니 설명력은 47.4%로 3.3%의 증가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창의성 척도는 통합창의성 척도로서 창의적동기, 창의적태도, 창의적능력의 세 가지 하위차원으로 나뉜다. 또한 안녕감도 정서안녕감, 심리안녕감, 사회안녕감으로 구성된 통합적 척도이다. 그러므로 어떤 변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하위차원간에 차이

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창의성 하위차원 각각을 준거 변인으로 하고 독립변인도 심리안녕, 사회안녕, 정서안녕으로 구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표 2를 보면 심리안녕, 사회안녕, 정서안녕간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긴하나 다중공선성 검증결과 독립적으로 보여지므로 모두 예언변인으로 투입하였다. 결과는 표 7, 표 8, 표 9와 같다.

[표 7] 창의적 동기에 대한 개별성, 관계성, 안녕감의 회귀분석표(n=568)

준거 변인	예언변인	B	β	t	R	R <sup>2</sup>	ΔR <sup>2</sup>	F
창의적 동기	1 개별성	.585	.495	16.470**	.495	.245	.245	271.266**
	2 심리안녕	.136	.286	9.385**	.564	.318	.072	193.830**
	3 관계성	.186	.164	5.298**	.583	.340	.022	142.778**

\*\*p<.01

창의적 동기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예언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개별성, 관계성, 정서안녕감, 심리안녕감, 사회안녕감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이 높은 순서는 개별성, 심리안녕감, 관계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설명력이 높은 변인은 개별성, 심리안녕감이었다. 또한 정서안녕감과 사회안녕감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7을 보면 1단계에서 개별성은 창의적 동기를 24.5% 설명하였다. 그리고 2단계에서 개별성, 심리안녕감을 투입하자 창의적동기에 대한 설명력(R<sup>2</sup>)은 24.5%에서 31.8%로 7.2% 증가하였고 3단계에서 개별성, 심리안녕, 관계성 변인이 투입되자 설명력은 34%로 2.2% 증가하였다.

[표 8] 창의적 태도에 대한 개별성, 관계성, 안녕감의 회귀분석표(n=568)

준거 변인	예언 변인	B	β	t	R	R <sup>2</sup>	ΔR <sup>2</sup>	F
창의적 태도	1 개별성	.585	.495	20.606**	.581	.337	.337	424.623**
	2 심리안녕	.136	.286	9.481**	.634	.402	.065	279.878**
	3 관계성	.186	.164	4.408**	.645	.416	.014	197.191**

\*\*p<.01

창의적태도의 예언변인으로 개별성, 관계성, 정서안녕감, 심리안녕감, 사회안녕감을 투입하니 설명력이 높은

순서는 개별성, 관계성, 심리안녕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명력이 높은 변인은 개별성, 관계성이었으며, 안녕감의 다른 하위차원인 사회안녕감과 정서안녕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8의 1단계에서 개별성은 창의적 태도를 33.7% 설명하였다. 2단계에서 개별성, 관계성을 투입하자 창의적 태도에 대한 설명력(R<sup>2</sup>)은 40.2%로 6.5% 증가하였다. 3 단계에서는 2단계의 설명력과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개별성, 관계성, 심리안녕 변인을 투입하자 설명력은 41.6%로 1.4% 정도 증가하였다.

[표 9] 창의적능력에 대한 개별성, 관계성, 안녕감의 회귀분석표(n=568)

준거 변인	예언 변인	B	β	t	R	R <sup>2</sup>	ΔR <sup>2</sup>	F
창의적 능력	1 개별성	.687	.530	18.028**	.530	.280	.280	325.016**
	2 심리안녕	.181	.347	12.017**	.622	.387	.106	262.662**
	3 관계성	.187	.150	5.117**	.637	.405	.019	189.129**
	4 정서안녕	-.029	-.066	-2.042*	.639	.408	.003	143.429**
	5 사회안녕	.045	.085	2.179*	.642	.412	.003	116.211**

\*\*p<.01, \*p<.05

창의적 능력의 예언변인으로 개별성, 관계성, 정서안녕감, 심리안녕감, 사회안녕감을 투입하니 설명력이 높은 순서는 개별성, 심리안녕, 관계성, 정서안녕, 사회안녕이였으며 모든 예언변인이 유의하였고 특히 설명력이 높은 변인은 개별성, 심리안녕이였다.

표 9의 1단계에서 개별성은 창의적 능력을 28% 설명하였다. 2단계에서 개별성, 심리안녕을 투입하자 설명력(R<sup>2</sup>)은 38.7%로 10.6% 증가하였다.

3단계부터는 이전단계와 설명력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3단계에서 개별성, 심리안녕, 관계성 변인을 투입하자 설명력은 40.5%로 1.9% 증가하였다. 4단계에서 개별성, 심리안녕, 관계성, 정서안녕이 투입되자 설명력은 40.8%로 0.3% 증가하였고 5단계에서 사회안녕이 추가로 투입되자 41.2%로 0.3%증가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개별성, 관계성, 안녕감은 각기 차별적으로 창의성을 설명하였다. 창의성 전체에

대하여 설명력이 높은 순서는 개별성, 안녕감, 관계성의 순서였다. 창의성 하위차원 각각을 준거 변인으로 하고 독립변인도 심리안녕, 사회안녕, 정서안녕으로 구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자 창의적동기, 창의적태도, 창의적능력에 대하여 개별성, 관계성, 안녕감이 미치는 중요도 차이가 세부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별성, 관계성, 안녕감이 창의성에 미치는 중요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가설 2는 지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성, 관계성, 안녕감이 높은 청소년이 창의성도 높게 나타났다.

개별성-관계성이 모두 창의성과 높은 상관이 있다는 이같은 결과는 정은이(2002)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그는 이 결과가 창의적인 사람의 모순적 인성 특성을 밝힌 연구들(Tardif & Sterberg, 1988; Maslow, 1954; Csikszentmihalyi, 1996)을 다른 측면에서 정리해준다고 하였다. 즉 창의적인 사람들의 독립적, 혁신적이며 자기주장적인 특성 즉 개별적인 성향과 협동적이고 타인을 배려하고 외향적인 특성 즉 관계적인 성향은 모순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한 개인 내에 존재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개별성-관계성이 청소년기의 중요발달 과제인 자아정체감 형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Guisinger & Blatt, 1994), 개별성-관계성을 상호 발달시키는 것은 창의성과 자아정체감을 모두 높일 수 있다는 교육적 시사점이 있다. 기존 학교장면에서는 창의성을 특별한 것으로 보고 창의성 교육방법에 대하여 창의적 사고력과 인지적 요소를 신장시키는 교수방법을 주로 강조해왔다(Runco, 2007). 그러나 개별성과 관계성을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성적 측면도 중요하다는 것으로서, 이는 특별한 교수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청소년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침을 주며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 방법에 관하여도 지침을 주는데, 청소년의 자율성, 개성을 편견을 가지고 비윤리적 태도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것이며 독특한 아이디어를 존중하며 인격적으로 대함으로써 타인과 환경에 대한 개방성, 민감성과 친밀성을 기를 수 있게끔 좋은 모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육현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청소년 개개인의 동기와 정서요소를 존중하는 창의적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안녕감이 높은 청소년이 창의성이 높았는데, 이 결과는 청소년의 삶의 질이 높고 심리적으로 편안하며 잘 적응되어있을 때 창의성이 높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창의성 개념과 건강한 개인의 개념은 궁극적으로 동일한 것 일수도 있으며(Maslow, 1963) 잘 적응된 사람은 생활의 문제와 모호성에 부딪히면서 극복하며, 단순한 순응 등으로 회피하지 않는다(Barron, 1963). 이는 정준성

(2008)이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창의성과 안녕감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결과와 유사하며, 정은이(2002)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상적 창의성이 높은 사람이 심리적 적응 척도들 중 긍정적 지표들(자기 존중감, 생활만족감)과는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부정적 지표들(고독감, 대인불안)과는 부적 상관을 보여 일상적 창의성이 심리적 적응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처럼 안녕감이 갖는 가치가 중요하므로 안녕감 증진 자체가 교육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이제 학교교육은 청소년의 균형적 발달에 더욱 가치를 두고 학생 개개인의 심리적 역량을 개발하고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써 교육은 청소년이 현재와 미래에 행복하고 창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창의성에 대해 개별성, 관계성, 안녕감 모두가 중요한 영향력이 있었다. 창의성 전체에 대하여는 개별성, 안녕감, 관계성의 순으로 설명력이 높았다. 즉, 자율적이고 자가지향적인 ‘개별적’ 성격특성을 가졌으며, 삶의 질이 높아 ‘안녕감’이 높고, 타인과 친밀감을 추구하는 ‘관계적’인 청소년이 창의성이 높다는 것이다. 창의적 실현을 위한 바탕이 되며 창의적 태도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주는 ‘창의적 동기’에 대하여는 연구결과 개별성, 심리안녕감이 중요한 변인이었고, 관계성도 유의한 변인이었다. 그러나 정서안녕감과 사회안녕감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자가지향적인 특성이 창의적 동기를 북돋아주며 삶의 질을 이루는 심리적 구성요인이 발달되어 있을수록, 또 타인과 친밀하고 관계적일수록 좋다는 것이다. ‘창의적 태도’는 활성화된 동기를 창의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이끄는 자세의 방향성으로서 연구결과 개별성, 관계성이 중요한 변인이었다. 즉, 독립적, 혁신적이며 자기주장적인 특성 즉 개별적인 성향과 협동적이고 타인을 배려하고 외향적인 특성 즉 관계적인 성향 모두가 창의성을 이끄는 데 중요하였다. 안녕감 중에서는 심리적 안녕감도 창의적 태도를 설명하였으나 설명력은 적었고 안녕감의 다른 하위차원인 사회안녕감과 정서안녕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창의적 능력’은 실제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데 동원되어야 하는 발견능력으로 연구결과 창의적 능력에 특히 중요한 변인은 개별성, 심리안녕이었다. 즉, 자가지향적이며 자율성이 높고 스스로 성장하여 의미있고 더 나은 삶을 살려는 청소년이 창의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관계성, 정서안녕, 사회안녕도 창의적 능력에 유의한 변인이었고 정서안녕은 창의적 능력을 부적으로 설명하였다.



영향력의 상대적 중요성으로 보면 청소년의 창의성에 있어서 개별성, 관계성, 안녕감이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변인은 개별성이었다. 개별성이 높은 사람은 독립과 자율 및 개성을 추구하며 자기 주장적이고 자기 확신이 강하며, 타인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별성이 창의성을 중요하게 예언하는 변인이었다. 이 결과는 창의적인 사람들의 성향에서 독자성, 비순응성이 높다는 선행연구(조정하, 2000; Mackinnon, 1962)와 유사한 결과이다. 청소년은 타인과 구분되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달시키며 진로의 선택, 부모에게서의 심리적 독립을 하는 시기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개별성이 높은 청소년이 창의성이 높았으므로 청소년이 타인과 구별되는 자기를 발달시키며 창의적 잠재력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안녕감의 하위변인 중에서 창의성에 중요한 변인은 심리적 안녕감이었고 사회적 안녕감이나 정서적 안녕감은 창의성에 중요한 변인이 아니었던 것을 볼 때도 개인적 성장에 지향하며 의미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창의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준성(2008)의 초등학교 대상 연구와 유사한데, 창의성과 안녕감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하위요인 중 심리적 안녕감이 창의성과 높은 상관을 보였고 정서적 안녕감은 매우 낮은 상관을 보인 것이 유사하였다.

한편, 약한 설명력이긴 하나 정서안녕감이 창의적 능력에 부적 설명력을 보인 것은 창의성과 정신건강간의 부적관계를 보고했던 결과들과 유사한 것으로서 (Mackinnon, 1962; Barron, 1965; Scott, 1985) 약간의 불행감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 창의적 능력을 활용하는 것(Nicol & Long, 1996)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인간의 정의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창의적 동기, 창의적 태도, 창의적 능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러나 창의성이 발현되기 위하여는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다(전경원, 2006; Taylor, 1959). 본 연구에서 연구한 관계성 요인과 사회적 안녕감 요인은 환경적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관계성은 타인 친화적으로 기능하는 개인의 특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개념이며, 사회적 안녕감은 개인이 사회에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학생 개인의 특성을 넘어서 가족, 친구, 학교, 지역사회 등 미시적·거시적 환경적 요인이 창의성 발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탐색하고 창의성을 발현하기 위하여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좋을 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후속

연구로 제안한다.

둘째, 창의성과 안녕감의 관계는 정준성(2008)의 초등학생 6학년의 결과와 일치하였고, 창의성과 안녕감, 창의성과 개별성-관계성의 관계는 정은이(2002)의 대학생 대상의 일상적 창의성에 대한 연구와 유사하였으므로 청소년기~초기 청년기의 일반화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15세~19세의 중고생 836명으로 대상표집이 서울시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일반화를 위하여는 다른 시도에서도 추가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의성, 개별성-관계성은 전생애에 걸쳐서 발달하는 것이며 연령에 따라 중요한 특성이 다를 수 있고 창의적 표현도 달라지므로 아동과 성인 대상으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을 아동과 성인에 대하여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개별성-관계성과 안녕감은 심리적 발달과 창의성에 관련성이 큰 변인이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개별성-관계성과 안녕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 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청소년 안녕감 척도’는 Keyes(2005)의 척도를 번안한 것으로 미국 청소년에 맞추어진 도구이며 한편 안녕감 측정도구로 각 구성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청소년에 맞는 문항을 추가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이현주, 이미나, 최인수, 2008). 또한 개별성-관계성 척도에 대하여 척도를 개발한 김동직(1999)은 개별성과 관계성의 하위 요인들 중 상반된 개념이라 생각할 수 있는 관계성의 친밀성 요인과 개별성의 독립성 요인간의 상관이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하여 척도를 축약하였다더라면 더 높은 신뢰도를 보였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그는 개별성-관계성의 문항을 좀더 명료하게 표현할 필요성도 시사하였으므로(김동직, 1999) 추후 척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통합 창의성 척도는 최초 91문항에서 원 개발자가 문항내적 일관성과 일차원성 검토에 의한 문항 선별과정에 의해 17개의 문항을 제거하여 총 74개 문항을 선별해낸 것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창의성 태도 하위요인인 개방성 척도는 신뢰도가 낮았는데 본 연구결과에서 개방성 요인은 개별성 상하집단, 안녕감 상하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의적 태도의 다른 요인들에서는 모두 차이가 있었던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통합 창의성 척도를 개발한 박병기, 강현숙(2006)은 개방성이 다른 하위 요인들과 관계가 미흡하였고 결정계수로 판단했을 때 취약한 요인구조를 형성하였다고 언급하였

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하여 문항이 수정될 것을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고은미. 초등학생의 다중지능과 창의성 및 자아 개념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원광대학교. 2005.
- [2] 김동직·한성열. 개별성-관계성 척도의 제작과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1), 71~93. 1998.
- [3] 김동직. 문화적 맥락에서 본 개별성-관계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1999.
- [4] 김신영, 백혜정. 한국청소년행복지수 개발 연구. 한국사회학, 42(6), 140-173. 2008.
- [5] 김아영. “21세기 인재육성과 교육심리학의 과제: 지능과 창의성”에 대한 종합논의. 교육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지, 173-183. 2005.
- [6] 김진숙. 창의적 성향, 창의적 능력, 변화 신념의 관계구조, 석사학위 논문, 전북대학교. 2006.
- [7] 박병기, 강현숙. 자기보고형 통합 창의성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0(1), 155-177. 2006.
- [8] 박영신, 김의철. 한국 사회와 개인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탐구.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에 대한 세대별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1), 161-195. 2006.
- [9] 이동원. 창의성 교육의 실천적 접근. 과주: 교육과학사. 2009.
- [10] 이현주, 이미나, 최인수. 한국 청소년 안녕감척도(K-WBSA)의 타당화 및 삶의 질 분석. 교육심리연구, 22(1), 301~315. 2008.
- [11] 조명환, 김정오, 권석만. 청소년의 삶의 질. 서울대학교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6(2), 51-94. 1994.
- [12] 임효신.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창의성과 자아정체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2010.
- [13] 조정하. 창의성이 높은 학생의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2000.
- [14] 전경원. 동·서양의 하모니를 위한 창의 학. 서울: 학문사. 2000.
- [15] 전경원. 창의성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창지사. 2006.
- [16] 정은이. 일상적 창의성과 개별성-관계성 및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2002.
- [17] 정준성. 아동의 창의성과 적응유연성 및 안녕 감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2008.
- [18] 허승연.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박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2009.
- [19] Amabile, T. M. *The social psychology of creativity*. New York: Springer-Verlag. 1983.
- [20] Amabile, T. M. *Creativity in context: Update to The Social Psychology of Creativity*. Boulder, Colorado: Westview. 1996.
- [21] Amabile, T. M. *Creativity in context(2nd.ed): Update to "The Social Psychology of Creativity"*. Boulder, New York: Springer-Verlag. 1996.
- [22] Barron, F. *The psynology of creativity*. In *New Directions in psychology, II*.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5.
- [23] Barron, F. & Harrington. D. Creativity, intelligence, and personalit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2, 439-476. 1987
- [24] Carlsson, I. Anxiety flexibility of defense related to high or low creativity. *Creativity Research Journal* 14, 341-349. 2002.
- [25] Csikszentmihalyi, M. *Creativity: Flow and the psychology of discovery and invention*. New York: Harper Collins. 1996.
- [26] Csikszentmihalyi, M. *Creativity*. 1996.
- [27] Csikszentmihalyi, M. Society, Culture, and person: A systems view of creativity. *The nature of creativ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325-339. 1988.
- [28] Cushman, P. Way the self is empty: Toward a historically situated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45, 599-611. 1990.
- [29] Diener, E., Diener, M., & Diener, C. Factors predicting the subjective well-being of 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653-663. 1995.
- [30] Diener, E., Suh, E. M., Smith, H. L., Shao, L. National differences in subjective well-being: Why do they occur? *Social Indicators Research* 34, 7-32. 1995.
- [31]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1999.
- [32] Dolinger, S. J., Preston, L. A., O'Brien, S. P., & DiLalla, D. L. Individuality and relatedness of the self: An autobiographic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1268-1278. 1996.
- [33] Dolinger, S. J., Preston, L. A., O'Brien, S. P., & Yee, D. Individuality and relatedness of the self: An autobiographic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1268-1278. 1996.
- [34] Ed Diener and Robert Biswas-Diener *Happiness: Unlocking the Mysteries of Psychological Wealth*. 2008.
- [35] Guilford, J. P. Creativity. *American Psychologist*, 5, 444-454. 1950.

- [35] Guilford, J. P. *Personality*. New York: McGraw-Hill. 1959
- [36] Guilford, J. P. *The nature of human intelligence*. New York: McGraw-Hill. 1967.
- [37] Guilford, J. P. Train of Creativity. In P.E. Vernon,(ed). *Creativity*, Middlesex, (pp.167-188). England: Penguin. . 1970.
- [38] Guisinger, S., & Blatt, S. J. Individuality and relatedness: Evolution of a fundamental dialectic. *American Psychologist*, 52, 1115-1124. 1994.
- [39] Gurin, G., Veroff, J., & Feld, S. *American view their mental health*. New York: Bearly Limited. 1960.
- [40] Isaksen, S. G., Puccio, G. J. & Treffinger, D. J. An Ecological approach to creativity research: profiling for creative problem solving. *Journal of Creativity Behavior*, 31(3), 212-226. 1993.
- [41] Kagitcibasi, C. A critical appraisal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Toward a new fomulation. In U. Kim, H. C. Triandis, C. 1994.
- [42] Kagitcibasi, S-C. Choi, & G. Yoon (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 (pp. 52-65). London:Sage
- [43] Keyes, C. L. M. Social well-being. *Society Psychology*, 61, 121-140. 1998.
- [44] Keyes, C. L. M., Shmotkin, D., & Ryff, C. D. Optimizing well-being: The empirical encounter of two tradi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1007-1022. 2002.
- [45] Keyes, C. L. M. The subjective well-being of America's youth: Toward a comprehensive assessment. *Adolescent and Family Health*, 4, 1-32. 2005.
- [46] Koestler, A, *The act of creation*. New York: MacMillan. 1964.
- [47] Ludwig, A. M. *The price of greatness*. New York: Guilford Press. 1995.
- [48] Mackinnon, D. W. The nature and nurture of creative talent. *American Psychologist* 17, 484-495. 1962.
- [49] Mark A. Runco *Creativity Theories and Themes : Research, Development, and Practice*. 2007.
- [50] Markus, H. R., & Wurf, E. The dynamic self-concept: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8, 299-337. 1987.
- [51] Martin E.P. Seligman, Ph. D. *Authentic Happiness :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2004.
- [52] Maslow, A. H. *The farther reaches of human nature*. New York: Viking. 1971.
- [53] Maslow, A. H.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per & Row. 1954.
- [54] Maslow, A. H. The creative attitude. *The Structurist*, 3, 4-10. 1963
- [55] Nicol, J. J. & Long, B. C. Creativity and perceived stress of female music therapists and hobbyists. *Creativity Research Journal* 9(1), 1-10. 1996.
- [56] Helgeson, V. S. Relation pf agency and communion to well-being: Evidence and potential Explan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16, 412-428. 1994
- [57] Osborn, A. F. *Applied Imagination, Principles and procedures of creative problem-solving*. NY: Charles Scribner's Sons. 1963.
- [58] Perkins, D. N. *The mind's best work* Cambridge, MA: Havard University Press. 1981.
- [59] Pennebaker, J. W. & Seagal, J. D. (1999) Forminf a story: *The health benefits of chology* 55, 1243-1254. 1999.
- [60] Reynold, F. Conversations about creativity and chronic illness I: Textile artists coping with long-term health problems reflect on the origins of their interest in art. *Creativity Result Journal* 15, 393-407. 2003.
- [61] Rogers, C. Towards a theory of creativity. ETC: *A Review of General Semantics*, 11, 249-260. 1954.
- [62] Rogers, C. R. Toward a theory of creativity In S. J, NY: Scriboner's. 1954.
- [63] Rogers, C. R. On becoming a person: *A therapist's view of psychotherapy*. Boston: Houghton Mifflin. 1995.
- [64] Ryan, R. M., & Deci, E. L.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141-166. 2001.
- [65] Ryff, C. D.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1989.
- [66] Ryff, C. D., & Keyes, C. L. M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719-727. 1995.
- [67] Sampson, E. E. The debate on individualism: Indigenous psychologies and their role in personal and social functioning. *American Psychologist*, 43, 15-22. 1988.
- [68] Scott, M. E. How stress can affect gifted/creative potential: Ideas to better insure realization of potential. *Creative Child and Adult Quarterly* 10, 240-249. 1985.
- [69] Smith, G. J. W. & Van der Meer, G. creativity in old age. In M. A. Runco & R. Richards(Eds.), *Eminent creativity, everyday creativity, and health*, 333-353.

Greenwich, CT: Ablex. 1997.

[70] Sternberg, R. J. *The nature of creativity: Contemporary psychological perspectives*. No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71] Sternberg, R. J. & Lubart, T. I. Investing in Creativity. *American Psychologist*, July. 1996.

[72] Tardif, T. Z. & Sternberg, R. J. What do we know about creativity? In R. J. Sternberg, *The nature of creativity*. Cambridge University. pp.429-440. 1988.

[73] Taylor, C. W. (Ed). *The nature of the creative press*. In P. Smith(Ed.), *Creativity: An examination of the creative press*. New York: Hastings House. 1959.

[74] Taylor, C. W. Finding the Creative. *Scientific Research*, 38. 6-11. 1961.

[75] Tina Seelig *What I Wish I Knew When I Was 20*. 2009. 이수경(역) 스무살에 알았다더라면 좋았을 것들. 서울: (주)웅진씽크빅 2010.

[76] Torrance, E. P. *Creativity in the classroom: What research says to the teacher*. Washington D. C: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1977.

[77] Torrance, E. P. *The search for satori and creativity*. Buffalo, Ny: Creative Education Foundation. 1979a.

[78] Torrance, E. P. Unique needs of the creative child and adult. In A. H. Passow (Ed.), *The gifted and talented: their education and development*. 78th NSSE Yearbook, 352-371. Chicago: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1979b

[79] Torrance, E. P. *Rewarding creative Behavior: Enperience in classroom creativity*. England Cliffs, NJ: Prentice Hall. 1988.

[80] Veron, P. The nature-nurture problem in creativity. In J.A. Glover,R.R.Ronning, and C.R.Reynolds (Eds.), *Handbook of Creativity*, New York: Plenum Press. pp.93-110. 1989.

[81] Weisberg, R. W. Problem solving and creativity. In R. J. Sternberg(Ed). *The nature of creativity: contemporary psychologist perspectives*. University of Cambridge Press. pp. 148-176. 1988.

[82] Woike, B. A. The use of differentiation and integration processes: Empirical studies of "separate" and "connected" ways of thin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142-150. 1994.

이 지 혜(Ji-hye Yi)

[정회원]



- 2011년 2월 :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졸업(교육학 석사)
- 2007년 3월 :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청 청소년상담센터 전문상담교사
- 2010년 3월 : 서울특별시 대영고등학교 Wee 클래스 전문상담교사

<관심분야>  
상담심리

이 창 환(Chang Hwan Lee)

[정회원]



- 1993년 8월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문학사)
- 1999년 8월 :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심리학과 (철학 박사)
- 2007년 9월 :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언어심리학, 인지심리학, 인지과학